

# 승동표 화백 탄생 100주년 특별전

## 내일 전북대 박물관서 개막식

한국과 일본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화단에서 잊혀져 간 운봉(雲峰) 승동표(1918~1996) 화백, 올해는 그가 탄생한 지 100주년 되는 해다. 전북대 박물관(관장 김성규)이 승동표 100년의 시간이 갖는 한국 미술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은 '열정, 분단, 은둔 그리고 희망'이라는 부제를 달고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전북대학교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이어진다. 승 화백은 우리나라에 100여 점을 비롯해 북한에 60여 점, 일본에 1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서양화 75점과 드로잉 33점, 국문화장 목련장 등 유품 등 149점이 지난 2013년 전북대 박물관에 수탁됐다. 승 화백의 화풍은 폴 세잔(Paul Cézanne)과 같은 후기 인상주의 화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렬한 색감과 붓 터치, 대상물의 간략화, 두껍고 견고한 외곽선 표현 등에서 후기 인상주의 화풍을 느낄 수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이러한 화풍이 잘 나타나 있는 30여 점의 서양화와 드로잉이 선보여진다. 특히 새로 찾은 작품 2점이 공개되며, 1936년 제1회 전조선 학생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수상한 작품의 원색도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흑백사진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승 화백은 우리나라 근·현대화가이자 교육자였다. 평안북도 정주 오산고보 출신으로, 우리나라 서양화의 선구자였던 임용권 선생의 제자였으며, 같은 학교 출신인 이중섭의 후배였다.

1938년 일본 유학을 통해 선진적인 미술 교육과 당대 화풍을 다각도로 습득하였고, 4년간의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임용권 선생의 후임으로 오산고보 미술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1.4후퇴 때 남한으로 피신을 하게 됨으로써 영원히 이산가족으로 남게 되었고,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남한에서는 평생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 왔지만, 그의 삶에는 화가로서의 집념과 미련이 오롯이 남아 있었다.



승동표 화백 특별전 전시점.

운봉 승동표 화백은 교직기간 중에 다수의 작품을 완성하였지만, 한 번도 전시회를 갖지 않을 만큼 자신의 열정을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전북화단과 한국화단에서 점점

잊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대학교박물관, 그리고 정읍시립박물관 등 여러 곳에서 승동표 화백을 알리는 데 노력해오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시조를 사랑하는 시조인 완주에 모여’

### 전국시조경향대회 성료

제17회 전국시조경향대회가 최근 완주 봉동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문원영 부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문화·예술단체 회원,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사)대한시조협회 완주지회가 주관한 이

번 경향대회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소중한 우리의 가락을 지키고자 전국의 소리꾼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뤘다.

이번 경향대회는 전국 각지의 시조 동호인 200여명이 모여 실력을 겨루었으며 읍부, 갑부, 특부, 명인부, 대상부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대상부 장원 최성례(순창)가 전북도지사상을, 명창부 장원 김옥녀(서울)씨가 완주군수

상을, 특부 장원 이종민(정읍)씨가 대회장상을 수상하였다.

문원영 부군수는 이날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문화·예술의 고장 완주를 찾아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시조경향대회가 우리 고유의 소리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군에서는 (사)대한시조협회 완주지회가 시조를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풍류를 즐겼던 조상들의 정서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가을 문턱에서 우아한 발레의 향연’

### 전북대 손운숙 교수, 30일 전북발레페스티벌 개최

가을의 문턱에 전북이 우아한 발레의 향취에 빠진다.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손운숙 교수가 이끄는 IMAGO 발레단이 두 번째 전북 발레 페스티벌을 9월 30일 오후 6시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여는 것. 손운숙 교수(IMAGO 발레단 예술감독)와 박원준 발레리인즈 대표 연출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발레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에 발레 저변을 확대하고, 창작의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 출발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손운숙 IMAGO 발레단(안무 황아인)을 주축으로 발레리인즈(안무 김원준), 아움무용단(안무 이해원), Devote 발레아카데미(재안무 신민경), 세종 아트 씨어터(재안무 성지선), 임은주현대무용단(안무 임은주), 제이투 이정화 발레 아카데미(안무 이정화), M발레단(재안무 문대하), 서은실 발레단(재안무 서은실), Dain Contemporary Dance(안무 박은희)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다.

특히 참여 단체 중 하나인 발레리인즈는 전북대 무용학과 발레전공 졸업생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1대 대표 성소영(현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교수를 출발로 현재 박원준(발레리인즈 대표) 대표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발레 창작 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손운숙 교수는 “이번 무대를 위해 혼신의 힘과 노력으로 고된 훈련을 극복한 각 참여단체의 안무가와 무용수들에게 감사



하다”며 “이 자리를 통해 전북지역 발레가 활성화 되고, 문화예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을 만든 손운숙 교수는 지난 24년 동안 척박한 전북지역에 발레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왔다. 제17회 전국 무용제에서 ‘비포 섯’ 작품으로 대통령상과 개인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 남원시, 내일 가족 뮤지컬 ‘디스이즈잇&힙합’ 공연

남원시가 ‘문화가 있는 날’ 9월 문화행사로, 남녀노소 나이불문 누구나 함께 어우러지며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 ‘디스이즈잇&힙합’ 공연이 내일 저녁 7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꿈을 위해 도전하는 10대들의 열정, 그 스토리를 그린 융복합 퍼포먼스 ‘디스이즈잇&힙합’은 문재야만 모인 어느 예술고 학생들이 끼와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청소년은 물론 어른까지 공감하여 아우를 수 있는 공연으로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뮤지컬부분(2016.10.1.~12.12) 박스오피스 1위, 2017년 난버널 뮤지컬 최고의 화제작이다.

특히, 예술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공연으로 미디어 퍼포먼스와 비트박스 오픈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스트릿댄스, 코믹마

술사의 대형 벌룬쇼!, 어둠속에서 펼쳐지는 불빛향연 LED 트론댄스와 레이저 쇼, 파워풀한 사운드 DJ의 EDM에 맞춰 보는 것만이 아닌 함께할 수 신나는 무대가 될 것이다.

공연은 시민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무료 공연으로 공연 당일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이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620-6152) 또는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2018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남원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디스이즈잇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